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미국, 2023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식품 내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최종 규칙 발표



SPS

이슈 바로가기 ▶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5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결정을 행정 조치에 완전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2015년 트랜스지방산의 주재료인 부분경화유를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물질)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으며, 2018년 6월 18일 이후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금지함
- 그러나 별도 규정을 통해(*)사전 승인 식품 또는 땅콩버터와 통조림 참치, 일부 유지 제품에 부분경화유가 허용된 바 있으므로,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이번 최종 규칙을 통해 별도 규정을 취소하고 모든 식품에 대해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 1958년 이전에 부분경화유 사용이 승인된 식품으로,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이 이에 해당함

- 주요 내용
- 1) 품목별 변경 사항

품목	변경 사항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	식품 규격 기준 내 선택적 성분으로 명시된 '부분경화유' 관련 사항 삭제
청어유(menhaden oils)와 유채씨유(rapeseed oils)	GRAS 승인 물질인 청어유와 유채씨유의 부분경화 형태(partially hydrogenated forms)는 GRAS 승인 물질에서 제외
경화 어유 (hydrogenated fish oils)	GRAS 승인 물질 중 식품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 간접 물질로 승인된 부분 경화 어유에 대한 규정 삭제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	1958년 이전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에 허용된 부분경화유 사용 승인 취소

- 2) 규정 시행 일자 : 2023년 12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

출처: Federal Register, Revocation of Uses of Partially Hydrogenated Oils in Foods, 2023.08.09

호주, 건강기능식품 등 저위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기준을 수정하기 위해 '허용 원료 결정사항'의 변경 제안

- 호주 연방의약품청(TGA)은 건강기능식품을 저위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해당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원료의 사용 기준은 '허용 원료 결정사항(Permissible Ingredients Determina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의하여 업데이트함
- 이번 업데이트 제안사항은 강황종 및 커큐민, 녹차 추출물, 벤조페논 등 5개 성분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성분 변경사항(Low-negligible risk changes)에 해당함
- 주요 내용



SPS

- 1) 변경 제안 사항

원료 성분	변경 제안 사항
강황(Curcuma) 종 및 커큐민(curcumin)	간 손상 위험에 따라 새로운 경고 문구 추가
녹차 추출물 (Green tea extract)	간 손상 위험에 따라 새로운 경고 문구 추가
벤조페논 (benzophenone)	안전한 수준의 허용 기준 재설정 필요
대두 포스파티딜세린이 풍부한 원재료 (Soy phosphatidylserine-enriched ingredients)	규정된 사용량 및 일일 복용량의 적합성 확인 필요
카카두플럼 (Terminalia ferdinandiana)	규정된 사용 기준의 적합성 확인 필요

- 2) 변경 일정 : 2023년 12월에 공고 후 2024년 3월 개시 예정

출처: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Proposed changes to the Permissible Ingredients Determination: Low-negligible risk changes 2023-24, 2023.08.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영국, 도수(ABV)를 기준으로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 도입 (2023년 8월 1일부터)



기타(식품)

이슈 바로가기 ▶

- 영국 정부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2023년 7월 31일부로 폐지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함
-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은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순수 알코올 1리터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 주요 내용
 - 1) 대상 품목

「주류 제품(소비세) 규정 2023(The Alcoholic Products(Excise Duty) Regulations 2023)」에 따라 주류 소비세는 알코올 함량(ABV)이 1.3% 이상인 다음 품목에 부과됨:

 - 맥주
 - 페리(Perry, 배의 과즙)를 포함한 사이다(*)
(*) 영국의 사이다(Cider)는 발효 사과 주스로 만든 알코올음료를 뜻함
 - 증류주 기반 즉석 음료(RTD) 제품(**)을 포함한 증류주
(**) 하이볼, 칵테일 등 섞어 마시는 증류주 기반의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상품화한 것
 - 과일 사이다와 같은 기타 발효 제품
 - 스파클링 및 강화 와인(Fortified wine, 브랜디와 같은 증류주를 첨가한 와인)을 포함한 와인
 - 2) 주요 변경사항
 - 이미 생산된 맥주와 사이다에는 알코올 도수 3.5% - 8.4%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
 - 2025년 1월 31일까지 일부 와인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알코올 도수 11.5%에서 14.5% 사이의 모든 '신선 포도' 와인은 세금 계산 시 12.5% 와인으로 취급됨
 - 2023년 말부터 알코올 도수 8.5% 미만, 최소 주스 요건 및 과일 첨가물/향료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사이다'를 정의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될 예정임
 - 3) 발효일 : **2023년 8월 1일**

출처 : The Grocer,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new UK alcohol duty system, 2023.07.01

영국, 수입 식품(팽이버섯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검사 강화 관련 의견 수렴

-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은 자국 식품 규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EU) 규정 2019/1793(수입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공식 통제)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는 공식 통제 조치가 강화된 3개 제품이 추가되었으며,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한국과 중국의 팽이버섯 제품, 살모넬라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시리아의 참깨 씨 제품이 이에 해당함
- 주요 내용
 - 1) 한국 관련 대상 품목 : 식품용 팽이버섯
 - 2) 조치 사항
 -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됨
 -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II) 목록에 포함하여 2년 주기로 검토 대상에 포함함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원산지 국가	식품 품목	CN code	검사 성분	검사 빈도
한국	팽이버섯	0709590000	리스테리아	20%
중국				

(*) CN code는 EU의 8자리 상품분류 코드로 앞 6자리가 HS code와 일치하며, 통관절차 진행 시 상세 품목분류 코드로 10자리까지 표현 가능함. 영국도 이를 사용함

3) 시행일 : **202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출처 : FSA, Amendments to Retained (EU) Regulation 2019/1793: Official Controls Applied to Imported High Risk Food and Feed not of Animal Origin, 2023.07.17